

여호수아 1 장

1.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일정한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4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씀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무엇 같은가?

모세의 죽음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율법의 대표자요 광야에서 죽어야 할 사람: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할 수는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수아 즉 예수뿐이다.)

모세는 율법 (행위)을 상징하고 예수(여호수아, 호세아)는 은혜를 상징

모세를 빨리 죽여 버리지? - 40년에 대하여 (정탐한 1일을 1년으로 환산)

또 다른 목적에서 40년은 필요한 햇수 (징벌, 교육, 민족으로 형성)

2.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돌아다니며 밟기만 하면 된다.(이미 주신 땅이다, 여러 번 말했다)

밟다 - 움직임 부족, 지나간다 - 면적 개념 부족, 뛰어(돌아)다닌다 - 비숫

전형적인 예가 여리고 (계속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3.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_____ (황무지여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 서쪽으로는 (해지는 대양 - 지중해), 북쪽으로(유브라데강 상류), 남쪽으로 (광야와 레바논)이다. 동쪽으로는 광활한 사막과, 산악지대여서 아마 북동쪽의 유브라데 상류인가?

4. 이 중에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 (역사책에서 배운 강성했던 족속이 하나 있는데)

철기 문화로 번성했던 히타이트 족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강성한 족속이 많았고, 또 헷 족속의 멸망이 꼭 이스라엘 때문은 아니다) 고고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역사적 문헌이나 유물이 성경 외에는 전혀 없어서 성경을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좋은 구실이 되기도 했다. 고고학 덕분에 입이 쏙 들어가 버렸지만 현재의 이스라엘 영토와 다윗 시대(전성기)의 영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영토와 비교해 보자.

5. 언제 하나님께서 6절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야 주시는 이유: 출애굽과 가나안 정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구심점을 갖게 하려고)

6.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히 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 전쟁에 나서는 지휘관이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문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병법을 익히는 것, 사기진작에 힘 쓸 것, 왕이 출전 전에 내려주는 검의 의미(누구든지 명령에 불복하거든 이 칼로 치라) ↔ 율법 책을 입에서 떼지 말 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장수가 전쟁터에서 성경공부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고3이 주일에 교회에서 성경공부하는 것과 비교)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말한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영성하게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8.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 갈렙과 함께 용감함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만큼 담대하다고 생각되는가? 아니면 겁이 많다고 생각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겁이 많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

9.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흔히 '위대한 신 우리의 영도자 000를 중심으로 폴폴 뭉쳐 이 난관을 기필코 극복합시다. 당신은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요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글이나 구호가 많이 등장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이라 하는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구국의 일념, 허문도의 편지, 차지철의 나섬, 이럴 때 아부성 발언이나 행동을 잘하면 출세의 길이 원하게 열릴 수도 있다. 신문 사설에 한번 기고도 하고)

10.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5)

11. 앞으로 치러 나가야 할 수많은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려면?

율법 책을 입에서 떼지 말 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12.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율법 책을 입에서 떼지 말 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비록 더딜지라도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거고 이야기 : 남이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라,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면 하라.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에서 나온 교훈이며 눈 앞이 아득할지라도 실제로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간 후배를 만났다. (김 상용)

13.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핵심은(1-9) 내용을 두 개의 동사로 요약해 보자.

가라, 주리라. 땅을 주었으니 건너가라.

행하라, 싸우라 얻으라 = 가라와 같은 의미.

가라, 주께(어쩔 수 없는 경상도)

14.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옛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다. 민수기 32장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나 여기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다. 이 두 지파 반의 요구는 무엇이었으며,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요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서 살도록 해 달라. (원래는 요단을 건너야 함)

조건: 용사들이 전부 강을 건너 형제들이 땅을 얻도록 앞장서서 싸운다면

15.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살기를 원했다. 이들이 거주하기를 원했던 땅을 가리키는 표현을 찾아보자. (세 군데 있음)

13절의 이 땅, 14절의 요단 이 편 땅, 15절의 요단 이편 해 돋는 땅

16.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는 한사코 순종하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웠을 것이다.

//////두 지파 반의 태도를 보면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권위가 서있는 것 같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이유가 있다면? 자신에게 그럴만한 요소가 있었다.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때문이었다.////

17. 율법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입에 달고 다니며(늘 읽고 외우는 것), 묵상하는 것(어떻게 생활에 적용시키는지 생각하는 것)

18. 민수기 26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용사의 수는 르우벤 지파 43,730명, 갓 지파 40,500, 므낫세 지파 52,700명이다.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누면 합계 110,580명이다. 그런데 형제를 돕기 위하여 강을 함께 건너 용사는 40,000명뿐이다. 왜 그런가?

가쪽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 있어야 했다. 전쟁에도 후방(본국)을 지키는 군대도 필요하다.

19. 이 두 지파 반이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라는 말로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했다. 내가 여호수아라면 이 말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왜?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저거가 언제 모세를 청종했노? 천날만날 불평불만에 원망만 해 놓고. 그런 식의 청종은 싫다. (모세에게 불평불만이었던 일은 다 잊고 이제는 모세를 당연히 청종해야 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다.)

20. 두 지파 반이 예전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1)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전쟁 중에 죽을지도 모른다.

3) 약속의 한 쪽 당사자가 죽었는데

21. 9절의 다음 말은 어느 말에 가장 강조를 두고 읽어야 할까? ①내가 ②네게 ③명한 것이 ④아니냐?

①: 내가 있지 않느냐?

PS : 10, 11절의 사흘 안에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정탐 둘을 보냈는데 라합의 집에 유숙하려다 들켰는지 며칠이라도 잤는지 도망가서 사흘을 산에서 있었고, 싯딤에서 출발하여 요단에 도착해서 사흘을 유숙했다.

가능성 : 3:2 절의 내용이다. (2장의 일은 그 전의 일이다 - 가능성 회박)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탐의 일로 늦어졌다.

여호수아 2 장

1. 라합의 행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 예를 들 수 있다.

히 11: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약 2:25: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라합처럼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도된 다음 설명들 중에 동의하고 싶은 것을 고르시오.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설명을 시도해도 좋다. 1) 믿음에 근거한 거짓은 거짓이 아니다. (=선한 목적의 거짓은 거짓이 아니다.) 2) 동기가 선한 거짓말은 용서될 수 있다.

라합의 행위는 모두가 본을 받아야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적극적으로 권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예가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거의 없다는 점이다. (속임수를 쓰면서 복을 추구한 예는 야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속임수로 인해 자신도 많이 속임을 당한 점을 기억하면 2번이 좋겠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라합의 경우를 하나님을 믿고 잘 아는 사람이 흉내내면 위에서처럼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즉 라합의 경우에는 그것이 최선일지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

2. 라합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구절을 참고로 해서 답을 찾으시오.

“잘하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통적인 것이었다. 요는 아는(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선택의 문제)

3. 여리고 성이 견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음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튼튼함

4.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여리고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과 싸워 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을 알게 된다. 1) 여리고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길래 오로지 수비만 하고 있었을까? 2) 수비위주로 버티더라도 일단 어디서 수비를 했으면 좋았을까?

1) 견고한 성, 2) 요단 강가

5. 라합은 용감하기도 하려니와 슬기로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슬기로운지 말해보자.

정탐꾼을 알아차렸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았고(별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일과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 관한 일도 알았고(별로)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아는 것

가쪽을 한군데 모으는 일과, 표시로 붉은 줄을 맨 것, 정탐꾼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은 점 (가택 수색을 초래했을지도)

속이는 일: 군인들 → 나루터로 보내고, 정탐꾼들 →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으라

6. 라합은 기생이라고 번역되었으나 실은 창녀라고 한다. (물론 어떤 성경에서는 여관 주인으로 번역된 것도 있음, 이방 신전의 창녀도 아님) 정탐꾼들이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유숙했을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기에 유리하고, 정보를 취합하기에도 유리하니깐 (도망자들이 잘 숨는 곳이 창녀촌인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7. 라합의 가족이 살아난 것은 창에 맨 붉은 줄 때문이다.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런 설명이 옳은가? 아니라면 비판을 해보자.

라합의 가족이 살아난 것은 창에 맨 붉은 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에 따른 그의 결단 때문이다. (질문처럼 설명하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어색하다)

8. 라합의 구원 과정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다.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죽이고 점령했다.

온 여리고 백성과 함께 두려움에 빠지다.

어느 날 이상한 손님이 두 사람 찾아왔는데 수상하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알아차리다. 신고 할 것인가? 숨겨줄 것인가?

왕의 신하가 찾아오다.

적당히 속여서 돌려보내다.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는 대신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다.

창문으로 탈출시키고 창에 붉은 줄을 매달기로 한다.

9. 라합의 요구에 대하여 정탐꾼들이 약속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은?

1) 붉은 끈을 맬 것 2) 가족들을 집 안에 모을 것 3) 누설치 말 것

10. 라합이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모리 족속을 멸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을 말할 때 계속 나오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고 잊지 못할 전투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경험 (첫 전투)

11.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록은 1:1-5:12까지다. 이 중에서 1장과 2장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1) 어떤 점에서 공통인지 2) 다른 점을 찾아서 각각 제목을 붙여보자.

1) 공통점: 입성을 위한 事前 준비라는 점 (=준비라는 점에서)

2) 다른 점: 1장: 내적준비 2장: 외적 준비

PS : 왜 정탐을 가만히 보냈을까? 가데스 바네아의 실수를 회상했을까?

여호수아 3 장

1. 물이 없어서 수천 Km밖에서 물을 끌어오는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가 완료되어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水路에 뛰어들어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가? (대통령인 가다피도 뛰어 들어갔었다) 수명복 입고 뛰어든 사람은 몇 사람이었을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자. 40년 동안 사막을 정처 없이 헤매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강만 건너면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이제야 방향도 끝, 고생도 끝이다.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일반적인 경우: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건너는 사람도 있을 법 = 환호, 흥분

이스라엘의 경우: 너무나 차분함 (강 가에서 바로 건너지 않고 사흘 동안 유숙한 점, 성결하라는 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흥분하고 감격할지언정 엉뚱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점, 하필 이 부분 공부를 할 때 후배들이 간식을 가져왔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판에 간식에 반가워 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차분하다면 제대로 된 학생 아닐까?)

2.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1) 여호수아를 키우심(3:7)

2) 이스라엘이 승전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3:10)

3)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와 그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4:24)

3. 우리는 보통 확률이 높은 기도를 한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기도를 한다는 뜻이다.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할 때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확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서도 이런 현상(우연히 강물이 말라서 맨땅으로 건너게 되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보인다. 어느 말인가?

15: 요단이 모퉁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4. 다음 두 성구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자. 1) 어느 쪽이 우리의 자세와 닮았는가? 2) 요단물이 끊어지는 기적은 둘 중에 어느 쪽인가?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쁨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 28:20-22

2)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짐↔물이 끊어져야 들어가지요

5. 요단강에 1)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며 2) 제일 나중에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 3) 왜 그래야 하는가?

1) 언약궤를 맨 제사장 (3:14), 2) 언약궤를 맨 제사장 (4:18), 3)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침

6.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사시는 하나님(3:10) ↔ 사신 우상

온 땅의 주(3:11) ↔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족속들

7. 요단강 물이 언제 끊어졌으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발이 물에 잠기자(어느 정도 잠기자 끊어졌을까?) 요단 한 가운데

8.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광야를 헤매 때 무작정 다닌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로 다니며 살았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1) 무엇을 따라서 갔는가? 2) 어떻게 따라갔는가? 3) 그것은 우리에게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갈 것을 말하고 있는가?

1)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갔다.

2) 약 2,000규빗 떨어져서, 스스로 성결케 해서

3) 하나님을 따라 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외하는 삶이어야 한다.

9. 사르단은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의 상류일까 하류일까?

상류(물의 흐름이 멈춘 곳)

10. 믿음으로 받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사건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코

웃음을 칠 이야기이다.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웃기는 삶이어야 한다. 즉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이며 요단강은 무엇인가?

우리의 언약궤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요단 강 : 죄악의 물결,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음) -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삶이어야 한다. ↔ 정신병을 앓는 멀쩡해 보이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음

여호수아 4 장

- 요단강을 건너 기념으로 여호수아가 세운 돌은 전부 몇 개인가?
12 (유숙할 곳) + 12 (제사장이 서 있던 곳) = 24
- 후손들이 여기 웬 돌을 이렇게 세웠어요? 라고 물으면 1)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 기념으로, 원래는 요단 강물 속에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맨땅처럼 건널 때 그 증거로 가지고 나온 돌이란다.
-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와 그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고, 너희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4:24)
-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수양회에 다녀온 이야기하라면 몰래 도망 다니며 군것질한 이야기, 어느 교회에 어떤 괴물이 있더라는 이야기, 목사님이 해준 우스운 이야기 등이다. 어느 선생님,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어야 한다)
- 여호수아가 어떤 점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노릇을 잘 할 수 있었다는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노릇을 잘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14절(여호와께서 크게 하시매)
-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본문에서 그 증거를 찾아서 설명해 보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1, 8, 10, 14, 15)
- 백성들은 강을 속히 건너다. 급하게 건너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O, X로)
물이 다시 넘칠 것 같아서 (X)
제사장들이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O)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간다는 기쁨 때문에 (O)
-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다음 구절을 참고 하면 1) 당장 할 일이 무엇인가? 2) 정확하게 몇 년 며칠 만에 가나안에 들어왔는가?
정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해서 14일 저녁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것은 매년 지켜야 하는 것이다(출12:3-6).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급하게 쫓기듯이 나왔다고 보면 15일에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1) 유월절 준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것이正月 10일이었다)
2) 40년에서 5일 부족
- 본문을 시간에 유의하여 네 문단으로 나누어 보자.
1-9(기념비 준비), 10-14(여호수아의 순종, 커짐), 15-18(기적의 끝), 19-24(기념비를 세움)
- 요단 강을 건너 기사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여러 번 나오고 있다.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각 장에서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3장: 언약궤, 4장: 기념비
- 요단강을 건너 기사가 3:14-17에도 있고 4:10-14, 4:15-18에도 있다. 빈 곳에 알맞은 말을 채우고 난 후에 세 군데의 기사가 중복인지 아닌지 말해 보자.

항목	3:14~17	4:10~14	4:15~18
행렬의 순서	제사장이 앞에서		
요단을 건너 때	모택 거두는 시기		
물의 흐름이 끊어진 때	제사장이 물에 발을 담그자		
물의 흐름이 끊어진 모양	아담 근처에서 일어서고		
제사장들의 역할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명령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고	
백성들의 모습		속히 건너으며	
마지막에 건너 것		여호와와 궤와 제사장	
동행한 자들		무장한 두 지파 반	

기적의 결과		여호수아가 커짐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과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욕지에 닿자 물이 다시 흐름

중복이 아니다.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 반복이 되고 있다.

10. 서로 다른 여러 기사를 편집하다보니 이야기가 반복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성경책을 주로 표절해서 쓴 3류 연애소설보다 못한 책으로 취급하는 셈이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자. (참고로 여러분이 만약 편집자라면 여기저기서 비슷한 글들을 주워 모아 만든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중복되는 부분을 제하고 하나의 깔끔한 장문으로 고칠 수 있다. 편집이라면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한다. 그런 성의도 없이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것은 모독이다. 여러분이 만약 편집자라면 했던 말 또 하는 식으로 편집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세 군데 기사를 하나의 정돈된 기사로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는가? 여호수아수가 그렇게도 무성의하게 기록된 글로 보이는가? 아마 이 글을 쓸 때까지도 여호수아는 흥분과 감격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워서 할 말이 많았는지도 모른다.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그러다보니 반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강조점이 전부 다르다. 내라도 다음과 같이 편집을 해볼 것이다. (뒤에 부록 삼아)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퉁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음 변방에 일어나 쏘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라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속히 요단을 건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사만 명 가량이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욕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앞세워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를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세 군데의 기록을 한군데 모은 글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남의 일같이 차분하게 쓰면 이렇게 될 것 같다.

11. 10절에 두 번 나오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솔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이른 것인가? (신1:38, 3:28, 31: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른 일

12.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나중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기록하여 차고 다니게까지 한다. 이 모든 기념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관련이 있다. 즉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가운데서 살아난 일, 요단강을 건너 일,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한 일 등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물은 무엇인가?

(모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권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갖게 된다. 추가로 간증을 인용하든지)

기념이 되리라 : 표해두고 기억하는 것

여호수아 5 장

1. 라합의 표현에 의하면 전에도 이미 간담이 녹았는데 이들이 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전에는 왜 그랬고, 이번에는 왜 그랬는가?

전 - 홍해를 건너 일과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

이번 - 요단 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 일

정신을 다 잃어버렸는데 또 한방, 결정타를 먹인 일이 아닐까?

10.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3:10) 이들을 둘로 구분하는 표현은? 다시 한 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는 단어는?

아모리와 가나안(5:1), 가나안 (7)족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9:1-2)

헷, 가나안, 블레셋(아모리 대신),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주석)

2. 옛부터 전쟁은 반드시 군사가 많고 무기가 월등한 나라가 반드시 전쟁에 이긴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아모리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은 싸우기 전에 이미 졌다. 왜 그런가?

싸우기 전에 기가 다 꺾어버렸으니깐. 선수 사기 문제다.

3. 만약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각오가 돼 있었더라면 그들이 싸워서 이길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어느 때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하고 낮기를 기다릴 때(9)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것도 적을 앞에 두고 할례가 급한 일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대답-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애굽의 수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4. 광야에서 반드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출애굽 후 할례를 받은 남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4-6)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써 하나님의 뜻에 반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았던 어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지 않았다.

5.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다. 찾아보자.

할례 없는 자.

6.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이로써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며 40년에 하루도 에누리 없이 다 했다)

7.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주식은 만나였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찾는다면?

땅에서 나는 소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 같은 기적을 바라면?)

8.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지도는 전혀 해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전쟁에 이길만한 무슨 계책을 전해주셨나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만 기록되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김이 우선이다.(여호수아를 격려하셨겠지만 그 내용은 6장에 기록되어 있다)

9.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얻은 교훈

10.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는데 하는 소망이 많이 있을 것이다. 구약에서 처럼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한 말씀해 주시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한 때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때 등등) 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본문에 그런 예를 찾아서 설명해 보자.

그 땅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음

11.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하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예를 찾아보자.

공부하는 것도, 대학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우선이다. ↔ 야 지금이 어느 땐데, 그거야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되지.

12.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치를 준비를 시키지 않고 율법을 입에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상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 강을 건넌 후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으니 또 무슨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음 - 남부 전투에서 승리)

여호수아 6 장

1. 여리고 백성들이 문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죽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무엇을 믿었는지 생각해 보자.

문을 닫고 있으면 공격하기도 어렵고 장기전으로 버티면 다른 원군이 올 수도 있다. 즉 성의 견고함을 믿었다. (자신, 재산, 하나님 중에 다른 것은 믿었다가 그것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2. 여리고 백성들이 믿는 구석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한 번 불어보기라도 하자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6장에서 보면 언제가 가장 좋은 기회였을까?

이스라엘이 성을 돌 때는 대열이 길어짐으로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위에서 공격을 해도 효과적일 텐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3.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전하는 방법을 듣고 불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최대한으로 불평분자가 되어보자.

1) 긴 대열, 2) 성 위에서 공격해오면, 3) 무슨 캠페인 하나 나팔은 왜 불어, 4) 병어리가? 소리도 못 내게, 5) 돈다고 무너지면 하루에 다 돌아버리지, 6) 오늘 일곱 바퀴 돈다고? 한 바퀴씩 돌아서 안 무너지니까 한꺼번에 일곱 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이거지? 참 쓸데없는 짓하고 있네, 7) 길게 나팔 소리가 나거든 외치라고 이게 외친다고 무너지? ↔ 나야만의 이야기,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 8) 약탈을 금하면 무슨 재미로 싸우나?

4. 대열의 순서는?

1) 무장한 자(6:6), 제사장 7(4), 언약궤 (4), 후군(8)

실제로 무장한 자들이 가장 앞에 섰으나, 일곱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행하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행하라는 설명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제일 앞에 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란 뜻이다.

5. 여리고를 돈 횟수는?

13 (6일간 1바퀴씩 소리 없이, 7일에 7바퀴)

6. 여리고는 6일 동안 아주 조용했다.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성 안과 성 밖에 있는데 왜 그렇게 조용한가?

성 안: 두려움으로, 성 밖: 하나님의 명령으로

7.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나? 고향소리에? 그렇다면 다른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계속 소리를 질렀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 하나님을 처음 알 아갈 때 기도를 더 잘 해주신다. 자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릴 때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더 큰 것으로 주신다) 고향소리에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 우리의 기도 때 문에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해주시기 때문이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서 공식처럼 되어가는 것은 나쁘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선물을 사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선물을 자꾸 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가 아니다.

8.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전리품은 무엇인가?

없음, (첫아들, 초태생을 바치라는 말씀처럼 여리고도 첫 성이었으므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과자 사주고 '하나 도/줘!' 하는 즐거움이다. 아들이 그 중에서 겨우 하나를 주면 그것도 기분이 아주 좋다. 안 주면 섭섭한 면이 있기도 하고 안 섭섭하기도 하고 묘하다. 다만 안 주는 것이 재미있어서 계속 '하나만 도'를 연발해 보기도 하고,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것은 아니다. (같이 먹자하는 아버지도 있단다. 그건 아들이 클 만큼 다 큰 후의 일이다)

9. 여호와께 바친다는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흔히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은지?

17절(21, 24) :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의미 ↔ ~는 살리라

10.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을 발굴한 후에 내린 결론은 여리고는 그저 지진에 의해 무너졌을 뿐 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비웃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시켰지만 그것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지진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라 했다. 야 그러면 학자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요 이쁜 놈들! 97. 4.20)

11. 여리고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

라합의 가족 외에 없음

창 15:16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결국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다. 노아 홍수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넘치는 분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함

레위기 18장 20-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악에 대해서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분은 아니다. (아이들을 끔찍이 좋아하기에 잘못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나 땡땡이치는 것을 눈감아 줄 수 없는 내 심정을 토로, 담임 기피인물 1호였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공표함, 지나고 나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를)

12. 요즈음 북한에서 가족단위로 탈출해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순하자마자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 라합과 그 가족은 구출되자마자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성결케 하는 절차를 밟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사들도 진 밖에서 7일간 주둔하라는 명령이 민 31:19)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전쟁 후에 귀환할 때 제일 앞에 세우고 프랭카드 들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시내로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에는 아무리 공로가 크다 해도 성결의 절차 없이 들어올 수 없다. 인간의 공로, 위대함 그것도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

13. 여호수아의 저주를 참고해서 다음 인용문의 ()를 채워봅시다.

‘그 시대에 벨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말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주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상 16:34)

14. 왜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게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요지에 재건하지 않고 폐허가 된 채 그대로 있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기념비를 세운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 ↔ 화석을 통하여 노아 홍수를 기억하라는 것과 비교하면?

15. 성경에서 ‘일곱’은 흔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의미한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의 시작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해당한다. ‘일곱’과 관련되는 것을 전부 찾아보자.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 제 칠일(=칠일간 도는 것), 일곱 번 도는 것

16. 라합은 그후에 유다 족장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다. 스스로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과 라합을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라합을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부를까?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보자. 거짓말을 마구해대는 교활한 창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플레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계자(季子): 막내 아들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 *make the camp of Israel a thing for destruction*)이 되어

추가 : 무엇이라 외쳤을까?(5)

한 번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새벽에 일어나 7번 돌고 전쟁을 할 여유가 있는 정도라면? 성이 작았다는 뜻

여호수아 7 장

1. 아간 때문에 욱을 먹은(멸시를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전부 찾아보자.

윗대 (유다,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와 이스라엘, 하나님

2. 누가 범죄했다고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 비록 아간 혼자 저지른 범죄라 해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였다.

3. 7장에 제목을 붙여 보세요.

아간의 범죄(1점), 범죄에 대한 여호와와의 진노(2점)

4. 여리고로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2:24)와 아이성에 보냈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비교해 보자. 무엇이 다른가?

여리고 정탐 :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아이성 정탐 :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시각만 나타냈다. (8:25에 보면 아이성의 주민이 12,000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정탐을 제대로 않았거나 너무 팔보았거나)

5. 이 정탐꾼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데 공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전투에 공헌한 것이 없다. 어차피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 굳이 있다면 사기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 사기조차 승리와 별 상관이 없었다.

6.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1) 무슨 잘못이 이스라엘 측에 있는가?(8:1 참고) 2) 그것들과 아간의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정탐꾼들의 소홀, 여호수아의 경솔. 2) 범죄로 말미암은 징벌의 시작(죽은 병사, 정탐꾼, 여호수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일) (범죄하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온다)

7.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백성들조차 간담이 녹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당하고 무너져버렸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는가? 1)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대항했으며 2) 그 결과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외쳤을까? 3) 결국 아간의 범죄 때문에 누가 가장 손해를 보았는가?

1) 어차피 죽을 거니까.(자포자기식일까? 계백식일까?)

2) 하나님도 별 거 아니네

3) 하나님 → 이스라엘 → 아간의 가족

8.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라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작은 실수야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대군을 이끌고 다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신라의 화랑 관창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함으로서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였던 것과 비교해 보자. 1)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앞장서서 울어버렸다. (아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

2) 그의 기도는 어떤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반항) -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옳다. (잘못된 기도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9. 낙심하여 모든 희망을 버리고 엎어져 울고 있는 자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10)

////////(여호수아는 자기 나름대로 전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어차피 믿는 것은 하나님뿐이었는데 지고 말았다. 당장에 눈앞이 아득했을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는 복음송은? 일어나 걸어라.

10. 낙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는 성결이 최우선이다.

11.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여리고의 그 많은 전리품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간이 숨긴 물건이 얼마 된다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시는가? 아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좀 부당하지 않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약에서도 이

렇게 하나님의 처사가 좀 부당해 보이는 사건을 찾아서 그렇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말짱하게 살아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말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는(역사하시는) 때에는 사소한 잘못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잘못(뒤에서 혹은 안 보이는 데서) 같으면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12. 아간의 잘못 때문에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아이성 전투에 죽은 사람 (36명)

13.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대체로 도(광역시)-시(군)-구(읍,면)-동(리)의 순으로 되어있다. 꼭 행정구역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스라엘의 임시 행정구역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지파 - 족속 - 가족 - 남자

14. ‘아골 골짜기 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그 골짜기에 가서 뭘 어쩌겠다는 말인가? 아간처럼 범죄하고 돌에 맞아 죽겠다는 말은 아닐 테고, 다 죽어가는 아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인가? 이 가사가 무슨 뜻인가?

아간의 범죄와 직접 관련은 없다. ‘괴로움’이라는 그 말뜻에 핵심이 있다.

15.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자기를 위하여 감춘 것 외에 아간의 잘못은 또 무엇이 있을까?

제비뽑기 해서 뽑히기 전에 자수하지 않은 점 - 적어도 하루 동안은 요행수를 바라고 버티어 본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음, 설마 내가? 혹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유다 지파는 광야생활 때부터 선봉부대로 앞장서 왔었다. 처음 제비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상황이 어떠했을까? 그래도 아간은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16. 지난해 우리교회 고등부 정기대회 때에 임원선출을 제비뽑기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한 자를 찾기 위한 제비뽑기와 우리 고등부의 임원선출을 위한 제비뽑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불가능한 경우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가능한 일은 우리가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선지자시대를 지나 만인 제사장시대이다.

17. 아버지의 범죄에 대하여 자식들도 죽어야 하나?

아마 알고 있었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 하실 때의 징벌은 특별히 혹독함(새로운 국가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혀 용서가 없음,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도 새신자가 보이면 참아야 한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호수아 8 장

1.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아간의 범죄 외에 또 무슨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기고만장 (다 올라가라, 성 뒤에 복병하라=최선을 다하라)

2. 하나님의 변심인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전리품은 다 가져라

3.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싸우더니 조그마한 아이성에 대한 작전은 대단히 신중하다. 작전에 동원된 방법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聖戰을 치르면서 이렇게 속임수를 써도 되나?)

정탐, 야간 매복, 유인, 협공

4.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 대한 공격 방법이 왜 이렇게 다를까? 참고로 아이성에 대한 공격 방법은 정상적인 공격 방법이고 여리고는 정상적인 전투가 아닌란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

여리고 전투를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원칙하에서 최선을 다하
여야함을 가르치심. 하나님 없는 게으름 → 하나님 없는 최선, → 하나님 있는 게으름, → 하나님 있
는 최선

5. 아이성 백성들은 氣高萬丈이다. 그 증거를 찾는다면?

전원 출동, 문을 다 열어놓고

6. 단창을 든 행위는 어디서 본 듯한데 손을 내리지 않는 의미는?

(전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도)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7. 전투를 하는 이유는 대체로 빼앗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싸워서 아예 폐허로 만들어버
렸다(여리고, 아이). 자신들이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없애기 위하여 전투를 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아간의 범죄로 인한 지난번의 패배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에 부
합되어 가는지 설명해 보자.

내부적으로 완전 성결 (내부 부패 적결) 외부적으로 아이성을 쉽게 함락(아이 왕의 방심)

9.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행한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1)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 2) 율법을 가르침 (강독)

10.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약 20마일 즉 32km 정도의 거리이며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인다면 이
들이 걸릴 것이다. 그 도중에도 적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
을 먼저 한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일까?

전투에서 승리는 자신의 성결(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공부를 다 집어치우고 예배, 전도, 기도만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다.)

11. (10번과 거의 같은 질문)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것은 전투의 시작일 뿐이다. 준비운동 정도밖
에 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사방에 적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의 기록이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한 일을 여기에다 기록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전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먼저 단을 쌓고 말씀을 들
고)

12. 여호수아가 본격적인 전투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율법을 가르친 것은 모세가
다음과 같이 명했기 때문이다. 혹시 여호수아가 명령대로 다 실행했는지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
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
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신 27:4-8)

최소한 100점은 넘어야 한다. (명령보다 더 실행함, 무엇보다 어려운 때에 실행한 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듣는 일이 결국은 기쁨 일이어야 옳다. 소요리 문답 1번 참조)

13.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자신의 뜻대로 한 일은 없다. 요단을 건너 일,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일, 아이와 전투,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일들은 전부 명령을 받아서 한 일이다. 누가 명령한 것인가?

하나님(앞의 세 가지)과 모세 (에발산의 제단)

(이 중에서 여호수아가 실행할 시기를 선택하는데 가장 재량권이 있었던 것은 어느 것인가?)

14.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고 여호수아가 처음 공격을 시작한 곳을 왜 이곳을 택했는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어떤 작전과 일치하는가?

적의 허리를 공략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분리시킨다. 인천 상륙 작전

15. 예전에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했다. 그래서 한 산은 축복의 산, 다른 한 산은 저주의 산이라 불린다. 어느 산이 축복의 산인지 본문만 가지고 추측해 보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뿐이다.

그리심산 (건강한 사람에게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여호수아 9 장

1. 여러 족속들이 아이와 여리고의 멸망 소식을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일전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온 전투와 앞으로 치를 전투는 어떻게 다를까?

실제로 여리고나 아이는 작은 성 하나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족속들의 연합군과 싸워야 한다.

2. 1절의 이 일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3절: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

3. 여호수아가 속지 않을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은?

7절-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4.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을 본문은 무엇이라 하는가?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5.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 이것은 실수한 뒤에 하나님께 원망 비슷하게 하는 우리의 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아는 것이다. 요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유의 함정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난다. -기도의 필요성

6.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하여 1) 사용한 도구를 전부 찾아보자. 2) 이런 도구들을 사용한 의도는?

1)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 기운 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2) 멀리서 왔음, 원방에 사는 족속이라고 위장함

7. 교활한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은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온갖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 똑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어느 정도 속아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마 10:16)'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위험을 피해간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8. 기브온 거민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살피면 차이점이 있다. 찾아오게 된 동기와 찾아와서 하는 말 사이에 차이점을 찾아보자.

3절 ↔ 9-10절 : 원방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근의 일은 언급하지 않음

9. 교회 내에도 가끔은 이런 기브온 거민과 같은 사람이 찾아온다. 1) 무엇하는 사람인가? 2) 어떤 특징이 있는가?

1) 교회나 교인을 상대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을 열고 지내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수도 있다.

2) 겸손(우리는 당신들의 종)과 신앙적: 새로 온 사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다, 어려움을 호소한다.

10. 라합의 경우와 기브온 거민들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라합은 앞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다. 이 둘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임 ↔ 속임수를 써서라도 목숨만 부지하려는 의도(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11. 화친을 맺었으나 곧 속았음을 알게 됐을 때 원인 무효를 선언할 수 없었을까? 이스라엘이 원인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로 맹세한 것 때문

12. 선린 병원의 선린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좀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잘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차피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나쁜 습관이 있으니. 각설하고 본문에 보면 '근린'이라는 말이 나온다. 근린이라는 말의 뜻은 문맥에 따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린의 뜻은 무엇인가?

근린(近隣): 가까운 이웃

선린(善隣): 선한 이웃

13. 다음 글을 읽고 간단하게 느낌을 말해보자.

'기브온 거민으로 나타난 히위 족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끈질기다. 500여 년 전에 디나 사건으로 속

아서 죽은 세겜성 주민이 히위 족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거민도 히위 족이다. 이 사건이 있는지(삼하 21) 400년 후 다윗의 때에 3년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사울의 후손 일곱을 기브온 거민에게 내어주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로 맹세한 것, 더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도 않는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면서 어긴 자에게 징벌을 가하신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대단하시다. (컴퓨터를 생각해 보자. 당연하다. 우리하고 비기지 말라)

여호수아 10 장

1. 예루살렘=평강의 터전, 아도니세텍=의의 주, 살렘=평강, 멜기세텍=의의 왕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예루, 아도니, 멜기, 세텍 등의 뜻은 무엇이며 예루살렘왕 아도니세텍은 살렘왕 멜기세텍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상당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아마 후손일 것이다.

2. 예루살렘왕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한 마디 했다면?

배신자

3. 우리말에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그와 꼭 같지는 않으나 아모리 족들이 보기에는 누가 시누이인가?

기브온 거민들, 하나님

4. 여러분들이 아모리 족이라도 이스라엘보다는 기브온을 먼저 칠 것인가? 왜?

배신감, 제 2의 기브온이 나오지 않도록 (징벌과 예방적 차원)

5.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투를 축구 시합에 비유하면 하나님은 심판인 셈이다. 그런데 이 심판은 대단히 편파적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불공정한 심판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1) 시합 전에 한쪽 선수를 찾아가서 꼭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함 (8)

2) 쏠하는 순간에 공을 두 개나 더 넣어줌 (우박11)

3) 이기고 있는데도 종로 휘슬을 불지 않음 (13해, 달)

6.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셨는데 그 편애도 정도 문제지 여기서는 좀 심하다. 하나님께서 정도가 심하다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않으면 안될 만큼 달라진 상황이 무엇인가? (이전의 전투와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레 겁을 먹고 꼼짝하지 않았던 여리고와, 싸움을 하고 했으나 조그마한 아 이성 전투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큰 전투(5개국 연합국과의 일전)이었기 때문이다. 전투 경험이 없 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차례대로 경험을 갖도록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용사로 키우고 계심을 본다.

7.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우박은 우연이 아니었을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증거를 말해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아모리 군사에게만 선별적으로 떨어졌다는 점

해가 떠 있는데 우박이 내린 점

8. 전쟁에 저버린 다섯 왕을 이렇게 인격을 모독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이보다 더 잔혹하다. 멸절시키라는 판에 이정도야

사탄의 세력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부하들의 간을 키우는 행위 - 군인들이 처음 전쟁에 나가서 총을 당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당겨야 하고 죽여야 한다.

9. 대표적인 전투가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이였다. 나머지 전투는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이 모든 전투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투의 과정: 길갈 → 기브온, 벧호론, 아세가, 막게다 → 길갈 → 막게다 → 립나 → 라기스 → 에글론 → 헤브론 → 드빌 →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의 기브 온 까지 → 길갈(도중의 길갈 = 결론부분으로 빼는 것이? 정리하고 또 다시 기록하는 방식은 앞 에서도 본 적이 있다.)

동맹한 다섯 왕: 예루살렘왕 아도니세텍, 헤브론왕 호합, 야르뭇왕 비람, 라기스왕 야비아, 에그론 왕 드빌이 동맹

여호수아가 친 도성: 막게다, 립나, 라기스,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빌, 산지와 남방, 평지, 경사지

10. 나머지 전투를 보면 거저 주운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어떤 말이 생각 나는가?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1:3)

11. 우리가 전도를 해서 친구를 교회로 인도한다면 사탄은 누구를 공략하려 들까? 본문에 비슷한 현상이 있는가?

친구 : 예루살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함

12.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가?

창 15:16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결국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다.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넘치는 분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함

이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침략을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수백 년이나 참아왔던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 가게 했는지도 알 수 있다. 즉 악한 이들과 격리시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통하여 민족적 동일성을 갖게 하고 가나안 족을 심판하 시려는 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대로 진멸하려하심

결과론이지만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도 생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악에 대해서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분은 아니다.

출토된 유물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들은 풍년과 다산을 비는 종교행위

(종교적인 음행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보면 짐작) 뱀 숭배에 관한 것,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땅속에 묻는 행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가? 에 대하여: 독생자를 그렇게 고생 시킬 수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혹독하게 두들길 수 있으며 특히 노아 홍수를 보라.

13. 여호수아가 작전 본부를 길갈에 두고 전투가 끝나면 길갈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길갈을 중심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필 길갈에 본부를 설치한 것은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 하나를 지도를 보고 찾아보세요.

배후에 아군이 있어서 후방 적을 막아주고, 병참 역할도 했을 것이다. 적의 허리를 자른 점

14.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권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벌써 세 번째다. 언제 언제 나타나셨는지 생각해 보자.

처음 세움 받을 때, 아이에서 패배하고 낙심해 있을 때, 아모리 연합군과 대전투를 앞두고

15. 기브온 거민에게 속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내버려두신 하나님께서 아모리 5개국 연합군이 나타났을 때는 미리미리 서둘러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버려두실 수 있지만 진짜 위협이 닥치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까지도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동북 8Km, 사해 북단 서쪽 25Km 해발 790m

길갈 : 기브온에서 40Km,

립나 : 예루살렘 남서쪽 42Km

막게다 :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옴바 남쪽 23Km, 아세가 북동쪽 3.2Km

라기스 : 예루살렘 서남방, 헤브론 서쪽 24Km

헤브론 : 예루살렘 남쪽 40Km

가데스 바네아 : 브엘세바 남쪽 80Km

고센 : 헤브론 서남쪽 19Km

아골골짜기: 사해 북단 서쪽 7Km

벧엘 : 예루살렘 북쪽 19Km

아이 : 벧엘 동남쪽 3Km

길갈 : 여리고 북동 3Km

기브온 : 예루살렘 북서쪽 10Km

아스다롯 : 갈릴리바다 동쪽 33Km

벧호론 : 예루살렘 서북쪽 약 16Km,와 19Km(두 군데 사이에 3Km에 이르는 가파른 비탈)

아얄론 : 여리고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아얄론 평야를 굽어보고 있는 산 위의 산 성읍

게셀 : 라기스 북쪽 32Km

에글론 : 라기스 동쪽 40분 거리, 가사에서 예루살렘쪽으로 25Km

가사 : 예루살렘 남서쪽 80Km, 지중해에서 5Km

야살의 책 :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詩歌를 모은 책 같은데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여호수아 11 장

1. 10장에서 그렇게 많은 왕을 죽이고 점령했으면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디서 또 이렇게 많은 나라가 나타나는가? 10장에 나오는 나라들과 지역이 좀 다르다. 어떤 지역인지를 알 수 있는 말은?

북방 산지

2. 도대체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야 할 것을 여호수아가 대신 싸우는 것인가? 10:42, 11:20

하나님이 싸워야 할 것을 여호수아가 대신 싸우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여야 한다. 하나님의 명대로 한 것이므로 (15)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지 않았을 것이다. (20)

진정한 자유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찾아보자.

1) 전투 전에 사기를 돌우심, 2) 적을 한 곳에 모아주심, 3) 불기만 하면 이기게 하심

4. 소설에는 복선이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어떤 사건을 말하기 위하여 미리 깔아두는 것이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삼손이 수난을 당하고, 연약케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어느 구절인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22)

가드(골리앗) 가사(삼손의 고생) 아스돗(연약케를 빼앗김 11:22)

5. 여러 날이란? 며칠쯤일까?

여러 해(약 칠 년)

갈렘의 나이로 계산 : 정탐한 때 40, 광야방향 38년(요단을 건널 때 78), 전쟁이 끝날 285 (14:10)

6. 여호수아가 치른 전쟁은 일반적으로 보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하솔왕 야빈과 치른 전쟁에서도 1)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는가? 2) 하나님의 어떤 의도 때문인가?

1) 노획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 점 ↔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를 노획해서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스스로 못쓰게 만든 점 (전쟁터에서 살아온 여호수아가 가장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말과 병거는 무엇인가? 재력? 미모? 머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하자. (신 17:16 : 왕된 자는 말(馬)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

2) 군사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

7. 다음 () 에 알맞은 단어를 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책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한 적은 없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짐작으로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없음)민수기, 신명기에 있다.

그 온 땅 : 산지, 남방, 고센 온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지와 평지 = 할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10장에서: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8.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이 어떤 성격을 지닌 전쟁이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은?

11:20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9. 학창 시절에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부러워해도 성이 차지 않는다. 그 때 그 놈한테 꼭 빠지고 싶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의 과거가 있다. 이 놈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40년이나 방황하는 고생을 했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적은 기사가 있다. 1) 어느 구절인가? 2)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기억코 기록하게 하셨을까?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민 13:30-14:36을 참고 하세요)

1) 21절, 2) 그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였더라면 키 큰 아낙 자손도 별 게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핸디캡이 있었다. 아마 키 작은 핸디캡이었는지 모른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신 13:32-33)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들었

다. 이스라엘이 이 핸디캡을 거의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1) 어디에 있는가? 2)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기어코 기록하게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1) 21절, 2) 그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였더라면 키 큰 아낙 자손도 별 게 아니었다.]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권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벌써 네 번째다. 언제 언제 나타나셨는지 생각해 보자. (10장 문제를 다시 보지 말고)

처음 세움 받을 때, 아이에서 패배하고 낙심해 있을 때, 아모리 연합군과 대전투를 앞두고, 가장 강한 북부 연합군과의 대전을 앞두고

23절(추가 설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남김없이 전부 점령했다는 뜻은 아니다. 군데군데 남은 세력과는 계속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해변 블레셋 지역은 점령하지 않았다. 요는 부분적으로 미점령지가 남아있다 해도 점령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했고 전체적으로는 전지역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했으며 민족적인 대규모 전쟁은 그쳤다는 말이다. 완전한 정복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다. (가나안 족속들을 점진적으로 몰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

하솔 : 갈릴리 북쪽 약 15(24?)Km, 메롬 호수 서쪽 7Km (크기는 약 200에이커 여리고는 8에이커)

아라바 : 갈릴리 남단에서 사해 북단에 이르는 저지대

돌 : 가이사랴 북쪽 약 12.8Km, 갈멜산 남쪽 17Km,

할락산 : 브엘세바 남쪽 42Km,

시므론 : 디베랴 남쪽 19Km,

악삽 : 악고 동남쪽 11Km,

시돈 : 두로 북쪽 30Km, 예루살렘 북쪽 165Km,

미스르봇 마임 : 시돈가까운 두로와 악고의 중간 지점

바알갓 : 레바논산과 헤르몬산 사이 (신약의 가리사랴 빌립보)

아납 : 헤브론 남서쪽 17Km,

가드 : 블레셋 5개 성읍 중 최북단

아르논 강 :

여호수아 12 장

※ 죽은 왕들의 이름만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재미없다. 건너뛰을까요? 이렇게 재미없는 부분도 즐거움으로 읽으려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 제대로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가 맨몸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을 상상로나마 느껴 보자. 지면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 이긴 감동을 느껴보면서 읽도록 노력해 보자. 그래도 전혀 감동이 없고 따분하면 그냥 넘어가자.

1. 가나안 전투가 다 끝난 후에 요약, 정리한 것이 11:16절부터 12장까지이다. 자세히 보면 중복된 표현이 있다. 1) 어디이며 2)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1) 11:16-17과 12:7-24, 2) 전자는 땅을 중심으로(북에서 남으로) 후자는 왕을 중심으로(남에서 북으로)

2. 12장에 언급된 땅을 2등분하면 1-6까지는 (요단 저편)이고 7-24까지는 (요단 이편)이다.

3. 12장에 나오는 왕들의 수는 전부 몇 명일까?

33이다. (여호수아 때 31, 모세 때 2)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왕들과 전투를 치렀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 하나만을 믿고, 이것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 앞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난관이 있을 지도 모른다. 부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일기에 정복한 왕의 이름이 이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헤스본 : 요단 강 동쪽 약 29Km

아로엘 : 사해 동쪽 약 22Km 아모리 왕국의 남쪽 한계선

광야 : 아라바 지역과 네게브로부터 남쪽과 동쪽으로 이어져 있는 '유대 사막' 지역

여호수아 13 장

1.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다. 다음 구절은 명예퇴직인가? 아닌가? 아니면 뭔가?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명예퇴직이 아니라 정년은퇴 하라는 말이다. 땅을 분배하는 일 하나만 처리하고

2. 남은 땅 1-7절의 명령에 좀 어색한 점이 있다면?

땅을 점령하지도 않은 채(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분배하라는 점

3. 아직도 점령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덜 순종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가나안 족속을 전부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쫓아낼 의도가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땅이 황무해질까 싶어서(백성이 번성함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출 23:29-30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이스라엘의 경계도 여기 있다.) 천적을 일정하게 남겨두는 지혜

4.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미래형이다. 뒤이어 나온 기사는 과거형이다. 다시 말하면 1-7절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뜻이다. 7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디서부터인가?

14장

5. 16-21절에 기록된 내용과 중복된 기록은 1) 어디에 있는가? 2) 왜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1) 9-10절 2) 9-10절: 두 지파 반의 전체 영토, 16-21절: 르우벤 지파의 땅 (사실은 16-31, 두 지파 반이 지파별로 분배한 땅의 기록=9-12, 전체 땅)

6. 여기에 모세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곳에 두 지파 반이 빠져 있는 이유를 말하려고

7. 모세가 점령을 하고도 당연히 쫓아내어야 할 족속 중에 쫓아내지 않은 족속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

8. 삽입된 모세의 이야기 중에 또 삽입된 부분이 있다. 어디인가?

14절(여호수아가)

9. 땅의 분배와 관련해서 다음 등식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고쳐 보시오. (14:3-4)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9지파 반 = 12지파 - 2지파 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9지파 반 = 12지파 - 2지파 반 - 레위 지파 + 요셉 지파 추가

(레위 지파가 빠지기 때문에 등식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 맞는 것으로) 참고 창 48:5, 49:22-

10.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주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말끝마다 ‘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토를 달고 있다. 레위 지파가 얼마나 서러울까? 14, 33절에 두 번이나 기록된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레위 지파에 땅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핵심이 있다.

다른 지파는 땅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가 하지만 레위 지파는 여호와와 화제물(여호와)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다. (만약 백성들이 우상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할 사람은 물질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 한다.

백성들은 레위 인들이 굶거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모세가 땅을 분배한 것은 능력이나 지위 고하에 따른 것이 아니다. 무슨 방식과 가장 닮았는가?

공산주의 방식에 (14, 24, 29, 31)가쪽에 따라)

공산주의 방식은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어른이 있고 어느 정도 긴장을 유지시킬 장치가 있으면 좋은 방식이고 민주주의는 제대로 시행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높은 수준이 있으면 더욱 좋은 방식이 된다.

12. 이스라엘 백성이 싯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도록 죄를 낸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기록이 있다. 누구인가?

브올의 아들 술사 발람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 : 해안 평야 지대,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그술 사람의 전경 : 시홀 강에서 에글론까지, 북쪽 요단강의 동부지방(?)

그발 사람의 땅 : 베이루트 북쪽 지중해 연변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도시, 예베일(현재)
메드바 온 평지 : 아르논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고원지대
메드바 : 헤스본 남쪽

여호수아 14 장

1. 여호수아는 국내 국외를 통틀어 경외하는 지도자였으나 독단이나 임의로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다. 즉 땅을 분배하는 기관을 (협의)체제로 운영했고 방법은 (가족별로 제비뽑기)였다.

2. 이스라엘의 땅 분배 방식을 따라서 땅을 나눌 때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를 많이 낳는다. (가족수에 따라서) 신실한 자녀를 많이 나아야

3. 14: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

12사람 (여호수아, 엘르아살, 9지파 반의 족장들) 레위 지파에서는 참석? 불참석?

민 34:16-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현재로는 13지파이다.

4. 정상적인 분배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땅을 차지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가?

모세의 약속에 따라 요구함

5.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기록은 13장에도 두 번이나 나왔는데 여기서 또 기록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 기록되었을까?

레위 지파를 빼고도 9지파 반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6. 그렇다고 레위 지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성읍과 들은 주었다. 이것이 다른 지파가 받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다른 지파는 생산을 위한 것, 레위 지파는 그냥 거주지일 뿐 (들은 그들의 가족의 주거지)

////////////////////// 지도 그리기 ////////////////////////

7.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도 인수대로 즉 식구 수에 비례하여 남거나 모자람이 없었다. 땅의 분배도 능력이나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오직 () 나누어졌다.

8. 갈렙이 말하는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것은 출애굽한 후 2년째이다. 그 후 이스라엘은 38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본문을 참고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정탐꾼 때 40세 + 방황 38년 = 가나안 입국 78세 (지금 나이 85세와 차이를 구하면) 현재까지 7년

현재 나이 85세 - (정탐꾼 때 40세 + 방황 38년) = 정복 전쟁 기간

9. 예수 믿는 사람은 흔히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로 욕을 얻어먹기도 한다. 속으로는 자기가 잘해서 일이 잘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팎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본문 어느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을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8) (결코 교만한 말 같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도록 하자)민 14:24-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심

10. 땅을 분배하는 마당에 갈렙처럼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 몫을 행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아니라면 그 이유를 찾아보자.

1) 가장 힘든,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달라함 (아낙 자손들의 땅, 성은 크고 견고함,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영웅) 기랴트 아르바 = 아르바의 성,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에 근거함, 3) 갈렙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주소서가 아니라 '쫓아내리이다'에 있다. 나중에 이 성읍은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고 도피성이 된다. 만약 이기적인 목적이라면 '이게 어떻게 싸워 이긴 땅인데...'

11. (제비뽑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일종의 도박이나 요행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모든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란다는 의미일 수 있다. (갈렙의 요구)도 어떻게 본다면 거만하고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의 모습이 극히 상반되는 두 가지 경우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가 있음에 유의하자. 나의 진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극히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알고 생활하자. 아니 그것보다는 내가 극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생활을 하자.

2절의 아래 = 19장까지를 의미한다. 경계가 처음부터 명확한 게 아니라 각 지파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계가 설정되어갔다. 12절의 '혹시'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단어의 번역이다. '만약' 또는 '정녕, 필시'

여호수아 15 장

보한의 풀 : 경계석(르우벤의 아들 보한 자손이 여리고 근처에 세웠다. 18:17)

- 유다 지파의 남편 경계는 사해 남쪽 약 12Km지점에서 (지중해까지)

////////// 에돔지경에 이름(염해 극남단에서 아그랍빔 비탈을 지나 신평야에) 거기서(서진) 가데스바네아 헤스론 앓달 갈가 아스몬 애굽 시내 지중해//////////

신평야 :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신평야가 아니다. 사해 남쪽의 평야 지대이다.

미리암이 죽은 곳(민 20:1)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곳 (민 27:14)
- 유다 지파의 동편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라고 되어있다. 어디서 시작해서 요단 끝까지라는 의미일까?

염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 유다 지파의 북편 경계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는가?

사해 입구(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 지중해(바다)까지 - 베냐민과 단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 (18:15-29)

벧호글라(요단 서편 약 3.5Km), 벧 아라바, 보한의 풀, 아골 골짜기, 드빌, 아돔빔 비탈 맞은 편, 길 갈, 엔 세메스물(예루살렘 동쪽 4.8Km), 엔로겔, 힌놈의 아들 골짜기, 여부스(예루살렘), 르바임 골짜기 북편, 넵도아 샘물(예루살렘 북서쪽 48Km), 에브론 바알라(기랴여아림), 세일산, 여아림산(그살론), 벧 세메스(예루살렘 서쪽 24Km), 딘나(벧세메스 서쪽 5Km), 에그론 식그론 바알라산 압느엘 바다
- 유다 지파의 서편 경계는 현재 쓰는 말고 바꾸어 보자.

지중해에 닿은 해안선 (대해와 그 해변)
- 우리나라의 마라도 가파도는 유다 지파의 (에돔과 신평야)이다. (극남단)
- 갈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나스 (웃니엘의 아버지가 곧 자기 아버지)

사실은 아니다. 삿3:9에는 '갈렘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 그러므로 웃니엘이 조카이다.
- 드빌을 칠 때 갈렘이 자기가 하지 않고 왜 공모했는가?
- 갈렘이 헤브론 성을 쳐서 빼앗는 것과 웃니엘이 기랴 세벨을 쳐서 성도 차지하고 아내도 얻은 것을 보면서 소감을 말해보자.

옛날 일, 남의 일, 웃니엘은 좋겠다. (자신과 관련짓지 못하면 -1점)

나도 기회가 되면 남도 보고 뽕도 따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시키면 +1점)

하나님만 의지했던 갈렘의 신앙,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신앙과 하나님과 관련되면 +2점)
- 시집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없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 즉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이것 저것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독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시집갈 때 이렇게 지참금을 가능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일까? 비난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주제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선이다)
-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샘물이 많은 땅도 달라는 말 - 여자는 도둑? 귀여운 도둑?
- 유다 지파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또 나온다. 앞에서 나온 것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앞 : 경계에 관한 기사

뒤 : 경계선 안에 있는 성읍들
-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갔는지를 말하는 책이다. 이스라엘의 타락 → 하나님의 징계 → 이스라엘의 회개 → 하나님의 구원이 되풀이되는 역사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은 어디인가?

63절 사사기의 서곡(전조)이다.(63) 제일 강했던 유다 지파에서부터

여호수아 16 장

1.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하고 전투에 앞장섰던 지파이다.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순서로 치면 가장 끝에서 두 번째인데 땅을 분배하는 데 왜 두 번째로 나타나는가?

두 개의 지파가 될 만큼 요셉의 후손이 많았다. (아마 애굽에서 가장 큰 집 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2. 요셉 자손이란 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한다. 2지파로 나누어 졌지만 땅을 제비 뽑을 때는 한꺼번에 뽑아서 다시 나누는 것 같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뽑은 땅은 경계선의 동서 남북도 없고 중간에 나오는 지명은 잘 모르겠다. 그냥 시작과 끝만 찾아보자.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 바다까지 (남쪽 경계만 기록된 것 같다) 여리고 물 동편 광야, 여리고 산지, 벵엘, 루스, 아렉사람의 경계, 아다롯, 서편으로 야블렛사람의 경계, 아래 벵 호론(게셀) 바다.

3. 1-3에 나타나는 땅의 기록은 짧고 명확하지도 않지만 상당히 넓은 땅이다. 이 땅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한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장,절)까지 일까? (2번 질문을 참고 할 것)

5-10(에브라임의 경계), 17:1-13(므낫세 반의 경계)

4. 에브라임의 경계도 잘 모르는 지명 투성이다. 지도를 참조해서 대략적인 위치만 알아두자. 다만 이러한 경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호 협의나 다른 형편에 따라 변동이 가능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9절 : 므낫세의 땅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었더라.

동 - 아다롯, 앓달, 윗 벵 호론, 북편 믹므다 다아낫 실로, 야노아 동편, 아다롯, 나아라, 여리고, 요단, 답부아, 가나시내, 추가로 므낫세 지경 내에 일부 성읍과 촌락

5. 유다 지파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로 여로보암 때에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종으로 써 먹으려고

6. 창 48:10-20을 읽고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보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가 형이다. 땅을 나누는데 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가?

에브라임(동생)이 먼저 땅을 차지한 것, 먼저 제비 뽑은 것

여호수아 17 장

- 17장은 앞에서 땅의 경계를 설명한 방식과 좀 다르다. 왜 기록한 방식에 일관성이 없을까?
아들이 없는 슬로보핫의 가족들 때문(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요단 서편에서 땅을 차지한 므낫세 반 지파 때문(마길과 길르앗의 자손들)
 - 싸울 능력이 있어서 땅을 차지한 사람(비옥하고 넓은 땅)은 요셉 자손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다.
갈렘과 비교하여 누가 우월한지 설명해 보자.
갈렘: 말썬에 근거한 행위였기 때문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이고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이면 3대? 여기서는 마길의 후손들이다.
 - 므낫세의 자손들에게는 한 가족당 한 분깃씩 즉 10분깃(몫)이 돌아갔다. 어떻게 10분깃이 되는지 설명을 해보자.
므낫세의 후손 (길르앗의 아들)은 6명이지만 아들이 없는 헤벨 자손은 딸 몫으로 5분깃, 나머지 아들 5분깃
 - 헤벨의 아들은 누구인가?
슬로보핫 (므낫세 - 마길 - 길르앗 - 헤벨 - 슬로보핫 - 딸들)
 -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이권 무슨 말인가?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한 므낫세 반 지파를 말한다.
 - 17:6의 남은 자손은 누구의 자손을 말하는가? (2절의 남은 자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마길의 자손
 - 아버지가 아들없이 돌아가시자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하여 모세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여성 상속법이 만들어졌다. 아마 최초의 여성운동가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난 후에 옳다고 여겨지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암전한 여학생만 참고로 볼 것. 민 27:1-11) 1) 그 장본인은 누구인가? 2) 이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슬로보핫의 딸들, 2) 기업이 옮겨진다.(경계가 뒤섞인다)민 36:6-9(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 것)
-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갈렘, 슬로보핫의 딸들, 악사, 요셉 자손들, 여호수아 ////////////종합문제로//////////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었는데 나중에는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았다. 잘라야 하는 것은 자를 때 확실하게 잘라 버려야 한다. (17:12-13) ////////////생략//////////
- 원래 이스라엘은 싸움을 잘했거나 전투력이 높았던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힘이 떨어졌다는 말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몇 번 싸워 본 후에는 자신들의 싸움으로(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생각해버린 탓이다. =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권투 선수 이야기 (기록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모험심이 사라짐)
 - 므낫세의 경계 내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을 찾아보자.
답부아 음과 그 곳에서 가나시내 남편에 이르는 경계 안의 성읍
 - 잇사갈과 아셀 지파의 지경 안에 있는 므낫세의 성읍은?
벧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아낙, 므깃도와 그 향리들
 - 본문의 기록은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중심으로 기록하다보니 나중에 된 일도 미리 언급이 된 것 같다.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는가?
므낫세의 경계 내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잇사갈과 아셀 지파의 지경 안에 있는 므낫세의 성읍(잇사갈과 아셀 지파의 땅은 아직 분배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경계 내에 므낫세의 성읍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일 것이다. + 13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 에브라임 지파는 행동보다는 말이 많기로(쓸데없는 자존심에서 유래한) 유명하다. 사사기에서도 다른 지파나 사사의 지시에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여기서의 주장도 그리 타당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과 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해보자.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은 제비 뽑은 경계 내에 있는 것 같다)

- 1) 에브라임과 므낫세반을 합치면 다른 지파보다 더 크지 않다.(민 26장)
- 2) 개척할 땅과 차지할 땅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다른 땅을 탈라함
- 3) 땅이 좁다. 철병거가 있어서 무섭다. (많이 약해졌음)

13. 요셉 자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였던 모양이다. 여호수아의 권면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나서기만 하면 철병거는 아무 장애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 (물위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처럼)

14. 창 48:22-2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 지파에게 땅을 더 주겠다는 이 약속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보자. (지도를 참고해서)

- 1) 넓은 땅(요단 동편 포함)마길이 얻은 것, 2) 가나안의 중심지 (두 지파의 몫) 딸들이 요구한 10 분깃(17:5)

여호수아 18 장

1. 7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의 거의 전부를 점령해 놓고도 자기 땅을 갖지 않고 실로에 진을 치고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1)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가정해서 귀중을 한 번 해보자. 2)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까? 3)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귀중하고 있는 찬송가는?

1) 아이고 이 답답한 백성들아! 다 이겨놓고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머하고 있노?

2) 교회에만 모여서 신자노릇하고 학교나 사회에서 당당하게 신자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앞의 작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

3) 408장: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맘이 조려서 못가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싸움은 이미 다 이겨놓은 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다.

그릇된 욕심과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쩌면 큰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2.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첫해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 해에 학교, 마지막 해에 자신들이 거하기 위한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과 비교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으면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다면?

회막을 세우는 일과 땅을 차지하는 일(기업을 분배하는 일)

(교회 일은 잘하는 데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소명에 충실치 못한 행위이다. 가정 일에 소홀하면서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 시어머니 구박하면서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괴부리면서 교회 자랑하는 사람)

3.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어떻게 7지파인지?

12지파 - 르우벤, 갓, 므낫세반, 므낫세반, 유다, 에브라임, 레위 = 7지파?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6지파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취급해서 5지파 +레위

4.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다. 두 지파의 경계선은 일치해야 옳다. 실제로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고 차이점이나 특징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15:5-9)

같은 것 같다. 다만 기록하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있다. 경계선이 짧다(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5. 총리가 된 요셉이 가장 보고 싶었던 형제는 베냐민이었다. 억지로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은데 유다가 나서서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목이 창세기에 있다. 이들 삼형제의 관계가 땅을 분배하는 데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어떻게?

베냐민 자손의 영토가 유다와 요셉자손의 중간(11)

베냐민 자손의 북방 경계 : 요단 → 벨아웬 황무지 → 루스 → 아다롯 앓달 → 벨 호론

베냐민 자손의 서방 경계 : 벨 호론 → 기랴바알(기랴여아림)

베냐민 자손의 남방 경계 : 기랴여아림 → 넵도아 → 르바임 → 힌놈의 골짜기 → 여부스 → 엔로겔 → 엔 세메스 → 글릴롯 → 보한의 돌 → 아라바 → 벨 호르라 → 염해의 북편 해만

베냐민 자손의 동방 경계 : 요단

6. 베냐민이 차지한 성읍들 중에서 낫이 익은 성읍이 있으면 골라서 특징이나 사건이나 무엇이든지 낫이 익은 이유를 적어보세요. 단 지명을 써놓고 인명을 설명하지는 말 것.

여리고, 벨엘, 기브온, 라마, 여부스(예루살렘)

여호수아 19 장

1.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의 장래에 대하여 말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창 49:5-7)'라고 예언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이 각 지파로 흩어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얻음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남부에 땅을 얻었음에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여 결국은 나라가 나누일 때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소속됨)

2. 유다 지파는 얼마나 맹렬하게 싸웠으면 땅이 남아돌고, 시므온 지파는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꾸중을 듣고, 나섰다는 것이 남의 땅을 그저 얻거나 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그렇게 얻기만 하니 동서남북 경계도 없이 성읍만 겨우 (18)개 얻었다. 유다가 얻은 성읍이 112읍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적다.

3.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 형태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지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를 찾아보자.

신앙을 얻기 위하여 온갖 박해를 받은 아버지세대 ↔ 작은 어려움에 허덕이는 아들 세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인 ↔ 생각은 동의하나 행동이 따르지 못하여 오그라들기만 하는 신앙인

4.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을 얻었으면 지도에 그려온 한 지파 몫의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남 좋은 일 시켰지 머. (헛수고 했지)

5. (스불론) 지파의 땅은 알만한 이름이 별로 없다. 베들레헬이 반갑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헬이 아니다.

6.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의 성읍 중에서 자신이 아는 지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파를 하나만 고르시오. (성읍의 이름이 아닌 경계선을 나타내는 지명은 제외)

스불론(0/12)잇사갈(4/16), 아셀(3/22), 납달리(4/19), 단(6/19)

7. 드디어 땅의 분배가 끝났다. 지금까지 땅의 분배는 세 군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가?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도 좋다.

제일 먼저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나누어준 것
모압 평지(요단 동편), 길갈, 실로

8.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대목이 있다면?

자기가 맨 마지막에 땅을 얻음, (그것도 자기 지파 에브라임의 경내에 규칙 준수, 민13:8)

9. 삼손의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사사들의 업적은 자기 민족을 압제에서 구해낸 것인데 삼손은 그냥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블레셋을 쫓아내었던 말은 없다. 즉 삼손이 속한 지파는 블레셋과 함께 거하면서 늘 싸웠다는 말이다. 쫓아내라는 가나안 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하도 힘이 드니 일부가 다른 거주지를 찾아서 멀리 떠난 이 지파는?

단 (물론 인구수에 비해서 지역이 좀 좁은 점도 있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공현도)

여호수아 20 장

1.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지중에 오살한 자 =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2.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피성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받기 전에 분노에 의해 개인적인 응징을 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3.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재판도 없이 죄가 용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

3. 실수로 친구를 죽인 사람이 고향에 가지 못한 채 낯선 곳(도피성)에서 여러 해를 지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부모 형제의 안부가 그림고 자식들의 소식이 궁금한 그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4. 여러분이 실수로 친구를 죽였다고 합시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당황한 모습 그대로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야합니다. 도피성에서 여러 해 동안 지난다면 1)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자신의 경우를 한두 가지 적어봅시다. 2)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괴로운 날을 지내던 중에 모두가 동시에 환호성을 지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가 죽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3) 기뻐 날뛰다가 즉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기뻐하는 사람은 살인자들 뿐이라는 사실(예수의 죽음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방법이 없음을 아는 죄인 뿐, 그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삶)

5. 도피성은 전부 몇 개인가?

6개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6.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밖에 없는 데도 9지파 반이 있는 곳과 도피성의 갯수가 같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가?

도중에 강이 있기 때문에, 2지파 반의 면적이 넓어서(인구 비례가 아니고 면적에 비례해서 존재하는 것이 옳다.)

7. O, X로 답하십시오.

1)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X)

2) 고의성 없이 지은 살인죄만 도피성이 유효하다. (O)

3) 고의성 없이 지은 살인죄는 도피성에 들어가므로 용서된다.(X)

4) 이방인도 이용할 수 있다. (O)

5) 12지파이므로 2지파당 한 개의 도피성이 배당되어서 전부 6개이다.(X)

6) 원수가 도피성에 도망가 버리면 결코 내 손으로는 잡을 수 없다.(O)

8.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도피성에 숨어버렸다. 재판을 받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그 원수는 도피성에서 살고 있다(민 35:27-28).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도피성 근처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성에서 나온 그 원수를 죽여 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죄(민 35:27-28):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대속 없이 성을 나올 수 없다.

9. 죄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을 만드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데 있지 않고 살리려는데 있다.

실수를 너무 두려워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10. 중국 교포들이나 외국의 근로자들이 적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그나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몸마저 다 망가져 버린 경우가 이 땅에서 많이 발생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할망정 그들의 등을 친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은?

9: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11. 모처럼 학교에 지각했더니 선생님께서 이유도 묻지 않고 매부터 들었다. 그 선생님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경우에도 이유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징계가 없도록 하시는데 = 하나님도 실수를 인정하시는데

12. (뒤에 첨부된 도피성 지도를 이용) A지점에서 실수로 살인을 했다. 어느 도피성으로 피할 것인가? 왜?

도망가는 도중에 잡힐 것을 고려해서 역으로

13. 민족마다 대체로 도피성 같은 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소도'라는 제도가 있었다. 성경의 도피성과 이런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도피성: 실수나 고의냐를 판별하기 위함인 주, 제사장이 죽음으로 무죄

소도: 죄의 고의성이나 실수를 가리지 않는다. 그냥 그 장소가 신성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1 장

1. 2차 세계 대전으로 영웅이 된 처질이 전쟁 직후에 실시된 투표에서 느긋하게 한숨자고 일어나 보니 투표에서 쪼터란 이야기가 있다. 영국 사람들의 냉철함이 돋보이는 평가가 나왔다. 즉 전쟁 때에는 당신 같은 영웅이 필요하지만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에는 전쟁 영웅보다는 노동당의 애들리 수상이 더 적합하다는 말이었다. 인기나 일시적인 흥분에 좌우되지 않고 투표하는 그들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종주국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성경 어디를 보다가 이런 첫소리를 하고 있는가?

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땅의 분배도 다 끝났으면 이제는 할 일이 많고 더 중요한 것 엘르아살이다.)

2. 레위의 자손들은 몇 가족으로 구분되는가?

3가족 1) 그핫 자손들: 2) 게르손 자손들: 3) 므라리 자손들

3. 레위 자손들의 거할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느낌이 어떤지 말해보자.

1) 그핫 자손들: (1) (아론의 자손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헤브론, 립나, 앳딜, 에스드로아, 홀론, 드빌, 아인, 유다, 벵 세메스), 베냐민 지파(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중, 13성읍

2) 남은 그핫 자손들: 에브라임(세겔, 게셀, 김사임, 벵 호론), 단(엘드게, 김브돈, 아알론, 림몬), 므낫세반(다아낙, 림몬) 10성읍

3) 게르손 자손들: 므낫세반 (바산 골란, 브에스트라) 잇사갈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인 간님), 아셀 (미살, 압돈, 헬자, 르흠) 납달리 (갈릴리 게데스, 함뭇 툴, 가르단) 13성읍

4) 므라리 자손들: 르우벤(세셀, 야하스, 그데뭇, 므바앗), 갓(길르앗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 스불론(옥느암, 가르다, 딤나, 나할랄) 중 12 성읍 합계 48

홀어짐에 불쌍한 느낌 ↔ 땅을 많이 얻었구나. 좋겠다.

4. 요단강을 건너 기록을 기록하면서 한꺼번에 기록하지 않고 말하려는 핵심에 따라 비슷한 기사가 반복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여기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얻은 성읍을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서술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읽을 때 자꾸 헛갈리게 마련이다. 1)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가? 2) 반복될 때마다 요점은 무엇인가?

세 번, 1) 성읍을 얻은 지파의 이름과 수, 2) 성읍을 소유하는 방식, 3) 얻은 성읍들의 이름

5. 기랴트 아르바(헤브론)의 촌락과 밭은 누구의 소유인가?

갈렙의 소유 (성과 들 : 아론의 자손들의 소유)

6.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도피성은 전부 몇 개 인가?

6개 (5개만 도피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36절의 베셀은 그냥)

7. 43-45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완전히 끝났음을 말한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졸업식 때의 모습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모든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말씀은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약속한 것인가? 또 가장 최근에 이 약속은 언제 누구에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어쩌면 새로운 에덴동산(가나안) - 다시 잃어버림(바벨론 유수) - 메시아에게로

9. 아론이 레위 지파니까 그 형 모세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땅을 나누는데 모세의 후손들에 대한 말이 전혀 없다. 모세의 후손들이 어느 성읍을 얻었는지 찾아보든지, 못 찾겠으면 소감을 말해보자.

레위 - 고핫 - 아르람 - 모세, 대제사장이라고 아론의 후손들은 특별대우를 받았지만 모세의 후손은 고핫 자손들에게 포함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소감: 국가 유공자를 이렇게 대접해서 나라가 잘되는가 어디보자

아무리 하나님 중심이라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모세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고 그 후손들은 조상의 공적에 연연하지 않은 자세는 진실로 본받을 만하다.

대통령이 임무를 마치고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교

여호수아 22 장

1. 목사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쓴 말 중에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지 타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따라서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좋으나 다른 사람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좋다. 나도 동감이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설명과 다른 점이 있다 찾아보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다.

2. 5절의 '크게 삼가'를 쉬운 말로 바꾸어 보자.

아주 조심해서

3.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의 명한 것과 자신의 명령을 다 잘 지켰다고 칭찬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 있다. 무엇인가?

1) 여러 날 동안 2)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4.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말한 내용의 요점을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1)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2) 돌아가도 좋다. 3) 하나님만을 섬기라.

1)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2) 돌아가거든 하나님만 잘 섬겨라.(돌아가도 좋단 말이 가장 핵심인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말은 적게 하고 부수적인 말만 길다.)

5. 앞에서 본 대로 가나안 전쟁을 7년 정도 걸렸는데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형제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웠다. 가족이나 특히 애인(그 때도 연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과 헤어져 지낸 기간이 굉장히 긴 셈이었다. 이것을 요즈음 말로하면 무엇에 해당하는가?

군 복무

6. 7절의 '기타 반 지파'도 좀 헛갈리는 표현이다. 헛갈리지 않게 표현을 바꾸어 보자.

나머지 반 지파

7. 6절에서 두 지파 반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고 하고선 9절에 또 '가니라'라는 말이 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여러 번 보았을 것이다. 9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함인가?

그냥 돌려보면 것이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게 하였음

8. 홍 은표의 할아버지가 양봉을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은표가 어릴 때 대단히 뚱뚱했다. 사람들이 꿀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요 하고 물었는데 사실은 꿀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형과 형수가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느냐고 하는데 눈곱 만큼도 가르친 적이 없었다. 어느 여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교감선생님이 '보기보다는 호봉이 참 높네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여선생이 발끈 했단다. '지 돈으로 월급 주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교감선생님이 참 좋은 분인 것을 알고 그 때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보기보다 젊어 보인다'는 뜻이었단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무수한 오류가 있음을 안다면 타인의 어떤 행위에 주관적인 해석을 합부로 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다. 심지어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신부가 바뀐 경우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편지내용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보자.

1) 객관적인 사실 : 두 지파 반이 요단 가에 볼만한 단을 세웠다.

2) 주관적인 해석 :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나보다.(실로에 모임)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어떤 행위 하나를 두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9.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전체 인구수가 대략 200만으로 추산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14절에 1,000만인이 되었을까?

1,000만인이란 말은 전체라는 뜻이지 구체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리브가가 결혼할 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이다.

10.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로서 비느하스가 하는 말 속에는 바탕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1) 그 사건들이 무엇이며, 2) 따라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31절도 참고)

1) 브울의 죄악(24,000명이 죽음 된 25:1-9), 아간의 범죄

2) 일부의 범죄로 전체가 벌을 받는 것 (너희가 잘못해도 우리도 벌을 받는다)

(너희 ↔ 온 이스라엘 18)

브올의 범죄: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행한 우상 숭배와 음행죄(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11. 22절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가?

4가지 - 전능하신 자(엘) 하나님(엘로힘) 여호와, 주

12. 두 지파 반이 새로운 단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 너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와 백성이 아니다'라고 헛소리를 할까 염려가 되어서

2) 제사용 단이 아니라, 단지 모형일 뿐이다.

3) 만약 분쟁이 일어나면 이 단이 증거가 될 것이다.

13. 훗날에 있음직한 다음 대화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의 어떤 의도가 성공했는가?

우리는 하나(한 집안)다.

저게 뭐예요?

단이지.

단이 뭐 하는 건데요?

제사 지내는 곳이란단다.

한 번도 제사 지내는 것을 본적이 없는 데요?

그래 저건 제사를 지내고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요단 강 건너 편 실로에 진짜가 있고 저 건 가짜야.

가짜를 왜 만들었어요?

음 그건 말이야 저쪽은 큰 집이고 이 쪽은 작은 집이라는 증거란다. 우리 집에 있는 할아버지 사진하고 똑 같은 사진이 큰 집에도 있는 것 봤지? 같은 이치야

14.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이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어떤 감회에 젖으면서(어떤 생각을 하면서) 요단을 건넌을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일, 가족과의 이별, 가나안 땅에서 겪은 무수한 전쟁

15. 두 지파 반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진 채 드디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간다는 흥분과 감격과 염려에서 단을 세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여호수아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지만 평소 실력을 발휘해서 답해보자.

유월절 절기만 착실하게 지키면 된다. 매년 일차씩 하나님을 뵈어야 한다. 즉 일 년에 한 번 실로에 예배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16. 군에 입대하여 행정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중대장이 교인이었다. 어느 날 야간 취침 점호 때 호주머니 검사를 하다가 영어 성경을 보더니 "교인 인가?"라고 짧고 조그마하게 물었다. 나도 짧고 조그마하게 "예"라고 대답했다. 약 두 달간 거기 있었는데 그 중대장에게 당연히 요구해도 될 만한 당연한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 난 단지 그 분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만이 내게 큰 기쁨이었다. 그 기쁨은 그 분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 분에게 이런 저런 부탁을 함으로 그런 것 때문에 중대장이 교인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또 나를 위해서 무슨 편리를 보아준 것도 전혀 없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던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서 나를 기쁘게 한다. 본문 어느 구절과 관계가 있을까?

33 (즐겁게 한지라) > 30 (좋게 여긴지라)

17. 비느하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18. 요단 가에 단을 세운 두 지파 반과 동쪽이지만 진멸시키겠다고 들고 나선 9지파 반을 서로 비교하면 1) 누가 더 하나님께 열성적인가? 2) 왜 자칫하면 民族相殘의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오해가 생겨났는가? 3)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는가?

1) 같다.

2)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화부족)

3) 대화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다.

19. 우리 집 애들 둘을 수영장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하도 말 안 듣고 싸우길래 '수영장 취소'를 선언해 버렸다. 한 녀석은 대뜸 포기해버렸다. 한 녀석은 아빠 말을 영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데려

다 달라고 떼를 쓴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에 항복하는 아이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라붙는 아이가 더 좋다고 한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이르는 말이 있다. 어느 단어가 그런 어감을 줄까?

친근히 하고(=작 달라붙다↔사랑하고 5)

20. 34절에 보면 작은 글자로 '엣이라'고 써져 있다. 왜 글자가 작을까? 이권 성경공부가 아니라 책을 읽는 방법을 아는 것인데 어쨌든 답이 성경책 안에 있으니 찾아보자.

창세기 앞 범례에 '원문에 가입한 작은 글자는 원문의 뜻을 더 밝힘임'(加入했다는 말은 원문 성경에는 없는 말을 첨가했다는 뜻이다)

분의(分誼) : 몫

여호수아 23 장

1.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말이 앞에도 있었는데(13:1)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앞 : 정년 은퇴할 나이, 여기 : 죽을 나이(온 세상이 가는 길 14)

2. 다음 문장에 빠져있는 말을 보충시켜보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해까지의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분배만 하고 지파별로 취하도록 명령함)

3. 1-5에 상호 모순이 되는 표현이 있다. 찾아서 모순이 되지 않도록 설명해 보자.

1절: 여호와께서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 4절: 남아 있는 나라들, 5절: 그들을 쫓으사 떠나게 하시리니

설명: 남아 있고 하지만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형편(치명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이어서 다 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 장로, 두령, 재판장, 유사 이 네 가지 명칭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나 대체로 명예직이거나 가문의 어른(고문), 실질적 지도자, 지도자급 중에서 특별히 전문분야의 일을 맡은 자(재판, 기록)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 누가 실질적으로 백성을 다스렸을까?

두령

5.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다섯 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른다. 이 다섯 권에 기록된 내용을 본문에 나오는 말로 요약해 보자.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11) 모세의 율법 책 =모세 오경 (수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어도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

6. 다음 명령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문장을 찾아보자.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0) - 말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11)

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을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보존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되, 징계는 먼 훗날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의 일이 아니다)

////////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친구와 사귀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약속도 하지 말라.' 하는 식이면 위험하다. 가나안 정벌의 목적이 '가나안 족속의 징계'와 '이스라엘의 보존'에 있음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과 열심히 섞여서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아니, 아무리 섞여놓아도 남을 물들일망정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무장하면 된다. 가나안 입성과 전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의미한다. 정복해야 할 영적인 영토와 전투이지, 사람자체가 아니다.(징계는 먼 훗날 하나님의 몫이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은 여기서 찾을 일이 아니다. 반복되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도 무찌르고 점령하는 일이 아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사귀면 우리의 신앙마저 빼앗겨 버린다고 안 믿는 아이와 친구가 되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있었다.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과 잘 사귀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말이 이방인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서 사는 수밖에 없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수나 텔런트, 운동선수에 술, 담배, 마약에 빠지는 것 ↔ 이들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 교회 어느 교실 화이트보드에 H.O.T 멤버들에 관한 글이 적혀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그런데 그렇게 빠져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하게 바꾸어(전도해서) 함께 살아야 할 존재는 없는가? 이슬람의 전도방식이 옳은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런 식의 전도지만 기독교가 강대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출 20:5 신 5:9 8:19 참고////////

8. 대흥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자.

없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가리킨다)

9. 천안 삼거리에는 세 갈래 길 있다. 이리 가는 길, 저리 가는 길, 돌아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갈래 길 보인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길, 너희 중에 남아 있는 민족을 친근히 하는 길(설명은 10번)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취할 수 있는 두 길을 의미한다. 본문에는 두 길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제 삼의 길을 개척했다고 생각하거나 제 삼의 길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도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제 삼의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길과 동시에 남아 있는 민족을 친근히 하는 길

1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예언)한 말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현재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다른 이야기)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망하지 않기 위하여(미래형 1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고 안식을 주셨으므로 (과거형 2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13. 다음 글은 대체로 옳은 편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수정해야 할 여지가 조금은 있다. 조금만 수정을 해보자. '제대로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초개같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조직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군대의 병기가 우수했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친근히 한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친근히 한 결과 →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친근히 해야 한다.

14. 어렵게 나라를 세운 사람일수록 나라의 장래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래서 훈요10조 같은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는 죽기 전에 자식에게 어떻게 회사를 키우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고를 한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복, 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만들어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방법,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라면 자연스럽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하나만 주문했다. 무엇인가?

여호와만 사랑하라.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15.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재비 뽐아 얻은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곤란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23:11)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싸우겠습니다.

여호수아 24 장

1. 참으로 중요한 마지막 유언을 성막이 있는 실로도 아니고 자신이 거주했던 딘낫세라도 아닌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았다는 것은 세겜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뜻인데 첨부된 지도를 참고해서 설명해 보자.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산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의미

추가: 아브람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창 12:6)

야곱이 우상을 각종 우상을 파묻고 마음을 새롭게 한 곳 (창 35:4)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계약을 새롭게 한 맹세의 장소이기 때문 (수 8:30-35)

2.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였는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에 아브람은 우상을 전부 때려 부셔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특별히 불러내었다는 뜻이었다. 이 말과 상반되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2절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전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듯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도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말한다.

3. 2-13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좀 특이하다. 1) '내가, 나는'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2) 그렇게 되풀이해서 자신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결론적인 핵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1) 14번. 2)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는 내가 3)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4. 공적인 자리에서 보면 늘 엄숙하고 엄격한 사람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보면 의외로 부드럽고 연약한 심성을 보일 때가 참 많다. 2-13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다 보면 엄격하고 무섭기만 하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약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드는 말이 있다. 어디인가?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2" 이유를 설명하니까. 잘못에 대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벌할 때는 무서운 것이지만 이유를 따질 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5. 23장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한 셈이고, 이제는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진짜 유언을 하는 셈이다. 모세 때부터 수없이 반복되고 여호수아가 또 반복해서 하고 싶은 이 유언의 요지도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인가?

여호와만 섬기라.(14)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이것이어야 한다. 교회일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하기 전에 이것부터)

6. 여호수아의 신앙이 잘 표현된 말은? 그 앞에 생략된 말도 보충해 보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15") 모두가 여호와를 버린다 해도

7.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은? 이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보았을까?

질투하는 하나님, 십계명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 주종, 창조주와 피조물, 부자, 친척, 부부, 연인관계 중에서) 질투는 무서운 보복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8. 23절을 보면 아직도 백성들 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온 자들이 어떻게 아직도 이방신을 가지고 있던 말인가? 그러나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도 워낙 혼란 일이니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별로 마음이 찢리지도 않는 채 이방신(神像이었던, 경향이었던 관예)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에서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은 대장신, 이방신은 졸병신 (多神 사상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진정으로 유일신을 믿는지 다신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자. 대학에 우선 들어간 뒤에 교회 다녔다 되잖아. 이런 사상도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다신숭배이다. 교회에서는 신자요 학교나 직장에서는 표시 내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9.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는 말은 좀 애매하다. 쉬운 말로 바꾸어 보자.

너희들끼리 서로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필요없다.(0)

10.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라는 증거가 될 곳과 다른 사람이 가필을 했음이 틀림없는 부분은 어디인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라는 증거가 될 곳: 26

다른 사람이 가필을 했음이 틀림없는 부분: 29~끝

11. 이스라엘 백성들은 록하면 돌을 세웠다. 우리나라에도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하여 진흥왕 순수비(순수가 純粹로만 알았지 巡狩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오랜 후에 알았다.)나 각종 공덕비가 많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돌과 우리나라의 비석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 ↔ 사람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

12. 11번 문제를 참고해서 우리도 돌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 반드시 세워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돌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신앙적인 기념물을 많이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잊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 사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격을 글로 남기는 것이다.

13. 6.25 전쟁 동안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목격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아무리 유화적인 제스처를 써도 끈이들지 않으며 경계심을 풀지 않는 반면에 6.25에 대해서 말만 돌은 세대는 실감이 나지 않으니 아무래도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세대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으나 아무리 강조해도 신세대는 신세대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역사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적어도 경험을 가진 구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만 반복하지 않을 뿐이다. 같은 이치로 본다면 31절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사기의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

14. 요셉의 뼈가 제자리를 찾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얼마인가?

400년 정도(애굽으로 이주한 후 7,80년 뒤에 죽었다고 보고)

애굽생활 400에서 - 죽을 때 나이(110) + 이주시 나이(40) + 광야40 + 정복, 분배(15) + 조금 더 산 것

여호수아의 수명도 110, 출애굽 때 40을 갓 넘었을 것이라고 보면 간단

15. 뼈하나 갖다 묻은 것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뼈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묘의 이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상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의 모형이다.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는 전투는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이 처절한 전투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부대끼면서 신앙의 순결을 위하여 피나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이 만일하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차츰차츰 자신의 능력으로 전투를 치러나갈 것을 요구하시며,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과 완성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임을 말한다.